

또다시 도서관인의 사명을 생각하며

정 기 영

(국립중앙도서관 관장)

目 次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새로운 세기에 대한 우리의 준비
2.1 정보화 수용
2.2 자료조직의 문제
2.3 이용서비스의 문제
2.4 지적자원 보존의 문제
제 3 장 결 론

제 1 장 서 론

세계의 많은 나라가 이제 몇 년 남지 않은 21세기를 앞두고 새로운 세기를 맞이 위한 갖가지 준비를 하면서 약간은 흥분된 분위기에 휩싸여 있는 듯 합니다. 우리 나라도 문화체육부가 21세기를 향한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고 “문화의 세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표방하면서 문화비전 2000년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21세기를 계기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도약하려는 인류의 염원이 담긴 것이며, 이 꿈의 실현을 위해서 과거를 천착하고 현재를 분석하며 미래에 대하여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서관은 총체적 정신의 산물인 지적 자원을 통하여 삶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워주는 도장일 뿐 아니라 민족과 인류의 기억 장치로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UNESCO가 도서관을 인류의 교육은 물론이려니와 국제적 이해증진과 평화증진에 이바지하는 생명력있는 기구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의 도서관은 반세기 동안 그 양과 질적인 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룩해 왔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바른 도서관 문화를 창출하려는 도서관인의 노력이라 생각되어 재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은 아직도 국민들에게 정보센터로서

또는, 평생교육의 장과 생활의 공간으로 인식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배경에는 도서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환경이 성숙되기 전에 타의에 의해 도서관이 수입된 탓도 있겠으나 경제와 안보 우선의 국가정책 때문에 소비성 기관으로 비쳐지는 도서관 정책의 소홀함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도서관이 이용자를 위해 희생적으로 봉사하여야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중심 경영기법의 실천에 게을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도서관의 수적 열세, 자료와 직원의 부족, 미온적인 정책, 국민의 공부방 인식 등 도서관이 안고 있는 현안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정책당국의 무성의에만 그 책임을 돌렸을 뿐 우리 자신의 흐트러진 자세에 대하여는 관대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무어(Moore, Wilbert)는 전문직을 “고도의 지적 훈련을 거쳐 일정한 자격을 가지며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사회적으로 유익하게 사용할 책임이 있고, 부의 획득을 직업상의 성공과 연결하지 않으며, 업무수행에 있어 자율적 책임을 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인은 그들이 갖고 있는 자격과 정보능력으로 지적문화유산을 전승하고 무한정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틀림없는 전문직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도서관인은 지식과 사상을 수집하고 이를 조직하며 배포하는 것이 민주사회를 이끌어 가는데 필수적 기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정보화시대에 있어 보다 특별한 책임과 사명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 2 장 새로운 세기에 대한 우리의 준비

오늘날 우리는 첨단 정보기술이 만들어내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너무나 근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업무가 전산화되어 토탈 시스템화되고 있으며, 전문(全文)데이터베이스와 영상·화상데이터베이스 등 다중매체가 책과 공유하면서 그 비중이 높아질 것이고 대부분의 정보가 통합되어 공중망을 통해 시간적·공간적 격차를 해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흥미로운 현실 앞에서 전통을 고수한 나머지 변화를 외면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며, 또한 기술을 에워싸고 있는 요란한 마력과 상업주의에서 생겨나는 잡음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새로운 매체출현에 따른 장서구성의 변화, 공중망에 의한 정보서비스 패턴에 적극 대처하며 이를 전통적인 자료조직과 서비스 방법에 효율적으로 이입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전국의 도서관인에게 바라는 것은 새로운 세기를 맞이 위한 어떤 거창한 계획을 세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도서관에 붙어닥친 새로운 물결에 적응하고 개인적·직업적으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직으로서의 판단과 의지가 공고하여야 하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습득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습득하고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가! 여기서 저는 미래에 대비하는 우리의 준비를 몇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1 정보화 수용

우리는 정보화 사회의 핵심이 되는 전산화 시스템의 사활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이를 위한 의사결정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정보전문가로서의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컴퓨터를 맹신하여 인간적인 면을 소홀히 하거나 컴퓨터의 존재를 도서관 시스템 전면에 내세움으로서 이용자와 도서관 자료, 이용자와 사서와의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전산화된 수많은 데이터베이스를 알고 정보전달기술을 효율적으로 가동시키는 일은 인간과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연결해주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2.2 자료조직의 문제

이용자가 현실적으로 요구하거나 요구할 것이라고 믿어지는 지적자원의 확보와 이를 이용가능한 형태로 조직하여, 후대에 전승하는 일은 도서관업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첫째, 도서관인은 도서관이 기록된 모든 관점과 다양한 의견이 포함된 모든 유형의 커뮤니케이션 자원을 축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양한 매체의 생성과 변화과정에 정통하고, 뉴미디어의 특징과 이용법을 습득하여 이용자의 요구에 알맞는 자료를 선택·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뉴미디어 즉 전자매체는 정보(데이터, 텍스트, 이미지 등)분야에서 비중이 더해지고 인쇄매체는 체계적 지식의 전달에 무한정으로

선호될 것이라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전문(全文)이 디지털화되는 전자도서관체제에서도 화면보다는 더 친화력있는 지면인쇄물의 존재가치를 계속해서 주시해야 합니다. 간편하게 정제된 정보의 공급도 중요하지만 조금 거칠지만(?) 다양한 독서의 세계에 몰입케 하도록 서가에 두루 갖추어 놓는 책의 가치가 아직도 유효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전통적인 자료조직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뉴미디어에 대한 서지적 표준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전산처리된 데이터베이스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철저한 주제분석과 적절한 색인언어를 선택·기술(記述)하는 것은 정보의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2.3 이용서비스의 문제

도서관인은 전자매체와 전자서비스를 업무과정에 통합하여 책과 같이 조직함으로써, 이를 탐색·활용하는데 가르침과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도서관인은 데이터베이스와 이용자의 중개인으로서 정보자문가 역할을 담당하여 정보제공의 고품질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업무의 추가는 우리의 직업생활을 훨씬 더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만 그렇다고 전자방식 때문에 인간의 숨결이 스며있는 전통적 정보서비스방법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도서관인은 사회에 대하여 정보와 사상의 유통을 촉진하고 모든 사람이 차별없이 정보원에 자유롭고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인간관계가 우선이 되는 이용제도로 재정비

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방법의 습득에 게으름을 피고 전통적 방법을 포기한다면 도서관에 사서는 없고 컴퓨터전문가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2.4 지적자원 보존의 문제

두말할 나위도 없이 도서관은 지식·정보를 보존하는 사회조직입니다. 때문에 사서는 전통적으로 기록의 관리자로서 비쳐져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존측면에서 볼 때 그 자체가 하나의 도전이 되고 있는 뉴미디어시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면인쇄물이 전자기법에 의하여 디지털화 되고, 이렇게 생산된 데이터베이스가 도서관의 중요한 장서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의 유지·보존의 문제는 경제성과 현실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비록 데이터베이스가 공간을 적게 차지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는 수시로 수정되며 순식간에 지워질 수도 있을 뿐 아니라 그 수명도 아직은 검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자료로서의 실물장서(인쇄매체, 비도서자료)보존의 문제는 지적문화유산의 보호 차원에서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용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도서관 모두가 보존의 문제에 매달려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존공간과 이를 위한 예산의 확보는 모든 도서관이 안고 있는 난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용을 위해서는 도서관간의 자원공유를 활성화하여야 하고, 보존을 위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이나 지역마다 특정 도서관을 지정하여

보존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케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과학적 보존을 위한 국제적 연구와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지적문화유산의 전승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3 장 결 론

많은 정보학자와 미래학자들이 책없는 도서관이나 벽없는 도서관, 또는 가상도서관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정보기술의 발달은 필경 미래의 어느 세월인가 그러한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도서관은 실물로서의 장서를 수집하고 조직하며 이용자에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간적 유기체로서의 실물도서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만약 도서관이 전산장비의 설치공간이나 데이터베이스 축적공간,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공간으로 필요하다면, 그리고 지역사회나 조직사회의 공공장소로 반드시 필요하다면 아마도 실물로서의 도서관은 영원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도서관인은 도서관의 기본이념의 바탕위에 새로운 정보, 새로운 매체와 장비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론적으로 연구하며, 공평무사하고 헌신적인 이용서비스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도서관인은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고 전통을 전수하여 문화를 창달하는 민주사회 교육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또 다시 우리의 사명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